

우육일일시장뉴스 (2026.10.09)

(주)로드프리미엄 | 대상: 중국 / 일본 / 미국 / 호주 / 뉴질랜드 / 남미(브라질·우루과이·파라과이·아르헨티나)

오늘의 핵심

- 1. 중국이 10월 1일부터 브라질산 쿼터 초과 물량에 55% 세이프가드 추가관세(총 67%)를 부과하면서, 브라질 물량이 일본·한국·중동 등으로 재배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
- 2. 미국 Choice 컷아웃은 10/7 US\$375.62/cwt로 전일 대비 3.31달러 내렸고, 375~380달러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.
- 3. 호주 EYCI는 914 A¢/kg로 전주 대비 2% 내렸고, 미국 수입 90CL 소고기 CIF는 320~325달러/cwt로 소폭 반등했습니다.
- 4. 한국의 호주산 세이프가드 관세가 24%로 발동된 뒤(7월 말) 8월 미국산 대한국 수출이 전년보다 14% 늘었습니다.
- 5. 아르헨티나가 일본 시장 접근(중북부 구제역 백신 청정지역)에 합의해, 남미산의 아시아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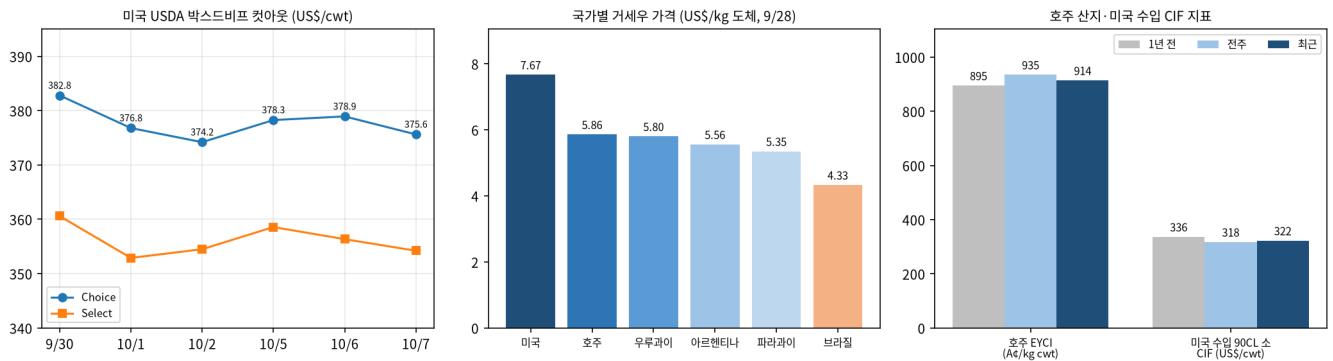
국가별 오퍼가격 참고 지표

실제 한국향 오퍼가격은 비공개이므로, 아래는 미국 수입 CIF, USDA 컷아웃, 산지 경매가, 수출 단가 등 공개 참고 지표입니다.

국가	지표	최근 가격	변동	출처
미국	USDA Choice 600-900 컷아웃 (10/7 오후)	US\$375.62/cwt	전일 -3.31	USDA AMS
미국	USDA Select 600-900 컷아웃 (10/7 오후)	US\$354.21/cwt	전일 -2.13	USDA AMS
미국	Choice 척롤 116A (10/7 가중평균)	US\$579.72/cwt	-	USDA AMS
호주	미국 수입 90CL 블렌디드 카우 CIF (9/25)	US\$320~325/cwt	전주 +5, 전년 -13	MLA 주간 리포트
호주	미국 수입 95CL 볼 CIF (9/25)	US\$365~368/cwt	전주 +3, 전년 +28	MLA 주간 리포트
호주	EYCI (9/30 주간)	914 A¢/kg cwt	전주 -2%, 전년 +2%	ABARES
호주	거세우 가격 (9/28)	US\$5.86/kg	-0.5%	World Beef Report
뉴질랜드	P2 스티어 스케줄 북섬 (10/5)	985 NZ¢/kg	4주 전 동일, 1년 전 885	interest.co.nz
뉴질랜드	M2 볼 스케줄 북섬 (10/5)	955 NZ¢/kg	4주 전 동일, 1년 전 835	interest.co.nz
브라질	거세우 평균 (9/28)	US\$4.33/kg	-1.1%	World Beef Report
우루과이	거세우 (9/28)	US\$5.80/kg	+0.9%	World Beef Report
아르헨티나	거세우 (9/28)	US\$5.56/kg	-0.9%	World Beef Report
파라과이	거세우 (9/28)	US\$5.35/kg	0.0%	World Beef Report
미국→한국	8월 대한국 수출 단가 (US\$2.01억 / 19,195톤)	약 US\$10.47/kg	물량 +14%, 금액 +20%	Oklahoma Farm Report(USMEF)

국가별 가격 변화 그래프

우육 국가별 가격 변화



자료: USDA AMS, World Beef Report, ABARES, MLA (90CL은 범위 중간값)

국가별 주요 뉴스

중국

- 중국 상무부는 브라질산이 2026년 국가별 쿼터 110.6만 톤을 모두 소진해 10월 1일부터 55%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. (Global Times)
- 기본관세 12%를 더하면 브라질산 실효 관세는 67%이며, 브라질은 2025년 대중국 약 165만 톤을 수출했습니다. (UkrAgroConsult)
- 호주산도 6월 20일부터 55% 세이프가드 관세를 적용받고 있고, 미국산은 일부 작업장 등록 갱신으로 8월 대중국 수출이 2,781톤으로 소폭 회복했습니다. (Oklahoma Farm Report)

일본

- 일본의 8월 소고기 수입은 38,686톤으로 전월보다 10.9%, 전년보다 10.5% 줄었고, 재고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(Food Market)
- 아르헨티나는 구제역 백신 청정지역(중북부)산 소고기·우설의 일본 수출 위생요건에 합의했으며, 일본 측 실사 뒤 선적이 시작됩니다(일본 관세 38.5%). (Buenos Aires Times)
- 미국산 8월 대일본 수출은 물량 -13%, 금액 +2%(US\$1.4억)로 단가가 높아졌습니다. (Oklahoma Farm Report)

미국

- Choice 컷아웃은 375~380달러/cwt에서 안정됐고, 립아이·스트립로인은 8월 초부터 사상 최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. (Drovers)
- 8월 행정명령으로 가공용 트리밍 30만 톤(월 10만 톤)에 대한 쿼터 외 관세가 90일간 유예됐지만, 실제 유입은 약 15만 톤으로 예상되고 다진육 공급 증가 효과는 2~3%에 그칠 전망입니다. (Drovers)
- 8월 미국산 소고기 총수출은 86,362톤(+4%), 7.86억 달러(+13%)였고, 한국향은 19,195톤(+14%)으로 올해 1월 이후 처음 전년 수준을 넘었습니다. (Oklahoma Farm Report)

호주

- EYCI는 9월 30일 주간 914 A\$/kg로 전주 935에서 내렸지만 전년보다는 2% 높습니다. (ABARES)
- 한국 수입이 7월 말 세이프가드 발동 물량을 넘어서면서 호주산 관세가 24%(기본 5%)로 올라, 연말까지 대한국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. (Oklahoma Farm Report)
- MLA는 호주산 9월 대미 선적을 44,000톤(+4.5%)으로 보고, 2027년 호주 도축이 4.3%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(MLA 주간 리포트)

뉴질랜드

1. ANZ 상품가격지수에서 9월 육류·섬유 지수가 0.8% 내렸는데, 소고기 가격 하락이 주원인이었습니다. (ANZ)
2. Westpac은 가공용 트리밍 가격이 4월 이후 내렸지만 앞으로 몇 달간 반등해 수출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봤습니다 (소고기 지수 397, 12월 402 전망). (Westpac Agri Bites)
3. Rabobank는 계절적 공급 증가와 호주·브라질산 경쟁으로 연말까지 산지가격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(Rabobank)

남미 (브라질·우루과이·파라과이·아르헨티나)

1. 브라질 Cepea/Esalq 비육우 지표가 1994년 집계 이래 명목 최고치를 기록했고, 사육두수는 2억 3,430만 두로 3년 만에 가장 적습니다. (World Beef Report)
2. Datagro는 중국 쿼터 소진으로 브라질 내수 공급이 늘어도 소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으며, EU 수출 중단(최대 2년 가능성)에 대해 Abiec가 반발하고 있습니다. (World Beef Report)
3. 1~8월 우루과이 수출은 232,344톤(-12%), 파라과이는 186,140톤(-24%)인 반면, 아르헨티나는 8월 72,900톤으로 늘었습니다. (Reconquista Hoy)
4. 미국향 브라질·파라과이 9월 추가 쿼터 10만 톤은 9월 21일 기준 31%만 채워졌습니다. (MLA 주간 리포트)

한국 수입업체 관점 시사점

- 호주산: 세이프가드 24%가 연말까지 적용되므로 신규 계약은 내년 1월 통관(세이프가드 리셋 후 기본세율 적용)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할 만합니다.
- 미국산: 대한민국 단가(약 US\$10.5/kg)가 오르고 미국 내 고급 부위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 척롤·립 계열 오퍼 상승 압력이 남아 있습니다.
- 남미산: 중국 67% 관세로 브라질 물량이 아시아로 돌면서 가격 인하 오퍼가 나올 수 있지만, 한국은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직접 수혜는 제한적입니다(최신 협상 상황은 별도 확인 필요). 대신 일본·동남아 시장에서 호주·미국산과의 경쟁이 심해져 간접적으로 한국향 오퍼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.
- 뉴질랜드산: 산지 스케줄이 전년 대비 11~14% 높아 한국향 오퍼도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큼.

한 줄 요약

중국의 브라질산 67% 관세와 한국의 호주산 세이프가드가 겹치면서 4분기 한국향 소고기 조달은 미국산 비중 확대와 호주산 1월 선적 이연이 핵심 전략입니다.